

동화된 세상을 꿈꾸다

“수기 맞아? 동화 아냐?”

청림 수기 공모 수상작을 다 읽은 후 떠오른 첫 느낌이었다. 동화에서 자주 대미를 장식하는 “그들은 그 후로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내레이션이 들리는 듯했다. 감상이 끝나고 감정이 잦아들 무렵, 이성적으로 다시 들여다보았다. 도대체 무엇이 내게 그렇게 동화 같은 느낌을 안겨주었던 것일까?

내가 생각해본 가장 큰 이유는 등장인물 모두가 청림의 수혜자라는 것이다. 끝까지 나쁜 사람도 패자도 없었다. 수기의 주인공들은 불합리에 맞서 합리적으로 청림의 가치를 지켜내는데, 그 과정에서 결코 상황이나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들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내어 주변 사람들까지 감화시킨다. 누군가 내게 이 수기집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라면 이렇게 답하고 싶다. 불이 붙어있는 심지 하나가 어둠 속에 꺼져있는 여러 개의 초에 불을 일으키고, 마침내 공간 전체를 환히 밝혀 어둠을 몰아내고 있다고 말이다.

여러 작품 가운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직속상관에게 충격을 드렸던(?) 내용의 수기다. 짐작컨대 직속상관뿐만 아니라 여러 독자들에게도 충격을 드리지 않았을까 싶다.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군대문화의 본진인 군(軍)에서, 대위가 중령에게 직언하고 오히려 중령이 대위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다니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닌가! 처음에는 주인공이 직업군인을 계속할 생각이 없거나 이미 전역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 용기를 발휘한 것이라 생각했다.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괘씸죄'에 걸리면 합법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괴롭힘을 당할 수 있으니 다들 참고 사는 것이 아닌가? 나의 '경험에 근거한 상식' 다시 말해 나의 선입견은 그처럼 깨지지 않기 위해 수기를 읽는 와중에도 자기 방어에 몰두했었다.

대대장이 군수장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 데에는 누구라도 수긍할 만큼 명확한 이유가 있었다. 군수장교의 강인한 청림 의식과 실전 경험을 통한 업무능력은 잠들어 있던 대대장의 양심을 흔들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연이은 사망사건

으로 위기에 처한 부대를 구해내었던 것이다. 부대장에게 이보다 더 고마운 일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겠는가? 비리에 동조하고 뇌물을 먹이며 기분을 맞춰주는 아침꾼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도움, 아니 구원이었기 때문이다.

청렴 수기집은 화끈하고 통쾌한 군수장교의 사연을 필두로, 잠시 흔들리되 곧 청렴의 길에 이르는 사연들이 이어진다. 그 여정에는 청렴으로 인도하는 이정표와도 같은 상징이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친구의 부탁으로 내부정보 유출을 고민했던 이에게는 방의 한 구석에서 그를 지켜보던 곰돌이 인형 한 쌍이 청렴의 상징처럼 존재했다. 민원인으로부터 감사의 봉투를 받아 잠시 갈등하던 소방관에게는 어린 시절 두부가게 아저씨의 종소리가 마음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었고, 해이해지거나 때때로 불의와 타협하고 싶은 유혹의 순간을 맞이하는 어부의 아들인 공직자에게는 마음속의 등대가 그가 가야만 할 길을 환히 비추어주었다.

무전(無錢)이 무성(無誠)이 아님을 증명해준 가난한 초등학교 친구의 신문지 꽃다발은 또 어떠한가! 글쓴이의 마음속에도 생생하게 살아있겠지만 읽는 나에게조차 들꽃의 향기가 전해져 꽃다발을 받은 선생님의 미소를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상징이란 단순해 보이지만 순간적으로 실체를 온전히 드러내기에 보는 이를 각성시킨다. 모습은 달라도 청렴이라는 공통된 가치를 마음속에 상징으로서 품고 있으니, 그 어떤 부정부패의 손길도 이들의 청렴 여정을 멈추게 할 수는 없을 것만 같았다.

수기집의 사연 속에는 청렴이라는 큰 틀 속에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해주는 다양한 가치가 담겨 있어 읽는 재미를 더해주었다. 이를테면 재치, 배려, 열정 등이다. 너무나도 완고하여 설득이 불가능한 어머니 몰래 신도증을 대신 발급받아 대표소 책상 서랍에 넣어둔 아드님의 재치는 청렴과 효심 사이의 갈등을 완벽한 균형으로 멋스럽게 해결하였다. 비행소년이 될 뻔한 상철이가 호의로 가져온 치킨을 두고 받을지 거절할지를 고민하던 주인공에게 솔로몬에 비유될 명판결을 내려주었던 선배 공무원의 기지와 배려는 제로섬(Zero-sum) 게임으로 끝날 뻔했던 상황을 윈윈 게임으로 바꾸어 모두를 승자로 만들었다.

옳겨 붙은 화재로 피해를 입고 홀로 전전긍긍하시던 할머니를 도와 큰 보상을 받아낸 법무관의 순수한 열정은 열심과 뒷심을 담고 있다는 초심을 떠올리

게 하였다. 할머니의 진심어린 보답을 돈이 아닌 손편지라는 진정한 보배로 돌려받은 배려 또한 읽는 내내 입가에 미소를 짓게 했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보상은 무언가를 내 손으로 성취하거나 기대 없이 남을 도와주었을 때 느낄 수 있는 뿌듯함이다. 자신감이 고양되고 내가 나를 마음속 깊이 사랑하고 칭찬해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엄격함도 청렴의 표현 방식일 수 있지만, 배려하는 청렴의 표현이 좀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자물쇠는 실제로 도둑이 도둑질을 못하도록 막는 장치가 아니야. 선한 사람이 도둑질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장치일 뿐이지.”

집 열쇠를 분실한 어느 대학생이 열쇠수리공을 불렀는데, 수리공은 자물쇠를 순식간에 열어 버렸고 놀란 대학생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다. 행동경제학자인 애리얼리(D. Ariely)가 제도적 규범의 중요성을 역설하기 위해 제시한 일화의 내용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속칭 김영란 법의 등장을 계기로 개인의 도덕성과 인정(人情)사이에서 갈 등하던 청렴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영란 법 이전에도 이후에도 보다 더 엄격한 청렴의 잣대를 자신에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수기집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단편이나 마 들여다 볼 수 있게 해주는 창문(窓門)이자, 실천된 청렴이 주변 사람들을 동화(同化)시키는 힘이 있음을 알려주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사회적으로 마련된 그 자물쇠 외에 나 자신만의, 우리들 각자만의 청렴의 상징을 하나씩 품고 서로 동화(同和)하는 삶을 산다면 더 이상 동화(童話)가 동화로 느껴지지 않는 사회가 될 수도 있다는 동화 같은 생각을 잠시 해보았다.